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5남, 7여선교회가 주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올해 교회학교 유아부와 유치부에서 봉사할 교사를 각 1명씩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1,2부 연합으로 11시에 드립니다. 점심식사는 없습니다. 설날 가정예배를 돕기 위한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급적 교회마당에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간소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지혜롭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렘 1:4~10 시 71:1~6
고전 13:1~13 눅 4:21~30

엡 5:6-20
----------

오늘 식당 봉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중
2/17 식당봉사 : 장혜숙 박성실 심상숙 정현선 오자영 허명선 최영혜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 이지혜 김용규 송 명 박해남 류준모 심호선
2/17 설거지봉사 : 류정옥 이수정 최재욱 최경미 광상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온 생명을 따뜻하게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안팎의 냉랭함에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이기심과 탐욕 같은 무거운 감정의 옷 벗어버리고 가벼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려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도 그런 이기심과 완고함이 없는지 겸허히 살피게 해주시고,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인식	권미숙	권채영	김경수	김세홍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연실	김용태	박정숙	김인걸	문영혜	김재홍	최희영	김종락
박영신	박경원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방문성	박혜경
손성현	안경아	송임희	안세진	안정숙	오규만	오진훈	노순옥	왕수경
이동천	이범석	류정옥	이용규	노지현	이용숙	이용현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장미란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전희수	정재정
정한구	왕영순	추현영	한인철	조윤숙	한훈식	홍성식	이유리	홍춘숙

###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숙	김성한	조영순	김정진	김혜정	백혜숙	서효진	장미란
정지윤	차혜심	홍복선	무명6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이진영	한양미	최미자	추현영	황현성	이오복
-----	-----	-----	-----	-----	-----	-----	-----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권미숙	박미영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김재홍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 고두밥

당신은 고두밥을 좋아했어요  
조금이라도 진밥이 상에 오르면  
몇 숟갈 뜨다 말고 막걸리를 찾았지요

고들고들 윤이 자르르 흐르는 밥이 상에 오르면  
잘 짓지 않던 웃음까지 지어 가며  
한 끼에 두 그릇을 똑딱 해치우기도 했지요

그랬던 당신이 지금은 진밥을 드시지요  
뭉디뭉은 진밥을 겨우겨우 삼키며  
저를 보고 걱정 말라 웃으시지요

나도 덩달아 웃어 드릴게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언제 또 고두밥 맛있게 지어 드릴게요

- 김소영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길을 일러주십니다. 혼곤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순리를 따라 사십시오.

아멘. 삶의 좌표를 잃은 채 분주한 일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5남, 7여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의 밤 (인도: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주혜연 선생 권혁순 권사

2월	영접위원	조병무 허호범 임주빈 박성실 고숙이 최현옥
	헌금위원	한상의 권미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황금률

... 요하난의 스승들은 위대한 랍비 힐렐(기원전 80-기원후 30년경)의 제자들이었다. 힐렐은 모세의 율법보다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힐렐은 공자의 황금률(己所不欲勿施於人 기소불욕물시어인)을 유대교 버전으로 표현했다. 어느 날 한 이교도가 힐렐을 찾아와 힐렐이 한쪽 다리로 선 채 자신에게 토라 전부를 가르쳐 주면 유대교로 개종하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힐렐이 대답했다.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토라가 말하는 전부이며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네. 가서 공부하게.” 그것은 대답하고 도발적인 율법 해석이었다. 힐렐은 신의 통일성, 천지창조, 출애굽, 시나이 산, 토라의 613계명, 약속의 땅 같은, 유대교의 핵심 교리로 보이는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에게 유대교 가르침의 본질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그저 ‘해설’이었다.

랍비 요하난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직후에 요하난과 동료들이 폐허가 된 성전 터를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랍비 여호수아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 슬프도다! 이스라엘이 속죄의 길을 찾는 장소가 이처럼 폐허가 되다니.” 그러나 랍비 요하난은 차분히 대답했다.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성전 못지않은 속죄의 길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 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았나.”

이제 친절함이 성전의 제의를 대신하고,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들 중 하나인 공감(자비)이 사제의 새로운 과업이었다. 공감은 경전 해석의 열쇠이기도 했다. 힐렐이 지적했듯이 토라의 모든 내용은 간단히 말해 황금률에 대한 ‘해설’이었다. 학자들의 임무는 성서의 본래 의도에는 어긋난다 할지라도 성서의 모든 계율과 이야기들의 핵심에 놓인 공감의 정수를 밝히는

것이였다. 요하난의 뒤를 이은 랍비 아키바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토라 최고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랍비들 중 한 사람만이 의견을 달리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는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구절이 인류 전체의 통일성을 드러내준다는 이유였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랍비의 유대교를 통해 동양의 전통들과 같은 공감의 기풍을 다지며 성장했다. 랍비들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중요함을 갖는 것은 무신론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살인은 인간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신성모독이기도 했다. “성서가 가르치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의 형상을 훼손하는 자로 간주된다.” 신이 태초에 오직 한 사람을 창조한 것도 한 생명을 죽이면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 역으로 한 생명을 구하면 인류 전체를 구하는 셈이었다. 노예나 이교도일지라도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은 신의 형상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이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었다. 타인에 대한 증오나 멸시를 조장하는 그 어떤 성서 해석도 타당하지 않은 반면, 불화를 없애고 사랑을 전파하는 해석은 좋은 해석이었다. 랍비 메이르에 의하면 성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는 “신의 현존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신의 현존과 모든 피조물을 기쁘게 한다”고 했다.

... 랍비들은 성서를 ‘미크라’라고 불렀다. 그것은 ‘행동하라는 요구’였다. 성서 해석자가 자기 공동체의 당면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판결을 찾아낼 때까지는 그 어떤 해석도 불완전했다. 이러한 역동적 시각은 세상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었다. ...